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행인 : 정철영, 편집인 : 이인복
 편집 : 대외협력·홍보위원회
 (김태일·김현석·손영환·신찬석·안동환·이은진·이찬·조철훈)

제24대 정철영 학장 취임



농산업교육과 정철영 교수가 7월 27일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제24대 학장에 취임하였다. 임기는 2년이다. 이날 201동 1층 강당에서 제23대 학장 이임식 및 제24대 학장 취임식이 열렸다. 이학래 전임 학장의 이임사와 정철영 신임 학장의 취임사에 이어 성낙인 총장과 농생대 동창회 이현수 회장의 축사가 진행되었다. 이날 이·취임식에는 정운찬 전 총리를 비롯한 우리 대학 명예교수, 교수, 직원, 학생 등 다수의 내외빈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정철영 학장은 본교 농업교육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1992년부터 본교 농업교육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농생대 학생부장, 서울대 학생처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이사장, 한국직업교육학회 학회장 등을 맡고 있다.

취임사

우리 농생대는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국가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하여 왔고, 2003년 수원에서 관악 캠퍼스로 성공적으로 이전하여 새로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생대는 농업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인 수월성을 추구함은 물론, 여러 학문영역이 공존하는 농생대만의 특성을 살려 타 학문분야와의 협력과 융합을 추구하고 나아가 서울대학교 발전의 중요한 견인자 역할을 수행하는 지식공동체로서 더욱 발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농생대는 농업과 생명과학을 통하여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시키고, 겸손, 배려, 감사의 숭고한 가치를 체득하고 실천하기에 적합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특성을 활용한 교육과정을 통하여 농생대가 서울대학교의 '선한 인재 양성'에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우리 졸업생들이 크게 쓰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생명과학대학은 Agriculture와 관련된 농축산식품은 물론 Life와 관련된 산림, 휴양, 환경, 식품안전, 건강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생대는 먹거리와 관련된 것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우리 구성원들 및 관악, 평창, 수원, 광양 등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학장으로서 저 스스로를 내려놓고 무거운 책무성과 진지한 각오로, 커다란 도전과 기회에 직면한 우리 농생대의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도움 주시고 부족한 저를 많이 채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24대 학장 정 철 영

제69회 후기 학위수여식



제69회 후기 학위수여식이 8월 28일 종합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성낙인 총장은 학위수여식사에서 "졸업생들이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고, 뇌성마비를 딛고 서울대에 입학하였던 경영학과 정원희 학생은 졸업생 대표연설에서 "불가능 속에서도 가능성을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는 동틀어 총 2,371명(학사 878명, 석사 969명, 박사 524명)이 학위를 받았고, 우리 대학에서는 총 182명(학사 80명, 석사 62명, 박사 40명)이 학위를 받았다. 우리 대학 최우수졸업자의 영예는 조성민(산림과학부 12) 학생이 차지하였다.

<주요내용>

1~3면_농생대 헤드라인
 9면_언론에 비친 농생대

4~5면_농생대 인사이드
 10~11면_기금출연

6~8면_Interview
 12면_농생대 사람들

신임 집행부 취임 인사



학장 정철영 교수

내년 개교 110주년을 맞는 우리 농생대는 긴 역사 동안 농업과 임업의 발전에 진력하여 국가 발전에 있어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또한 수원에서 관악으로 이전한 지난 12년 동안 관악캠퍼스에 성공적으로 뿌리를 내려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생대는 농업생명과학분야에서 세계적인 수준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농생대에는 다양한 학문 영역이 공존하고 있어, 여러 학문 간의 융복합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농생대가 서울대학교 융복합의 선도자로서 대학 발전의 선구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나아가 창조경제를 이끌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연구와 인재육성을 통해 국가발전의 동력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평창캠퍼스는 산학협력과 국제화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성장·발전해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농생대는 농생대만의 발전을 추구하기보다는, 농생대의 다양한 기반을 토대로 타 단과대학 및 타 전

공분야와의 협업과 상생을 통한 동반 성장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농생대의 발전은 집행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우리 모든 교직원과 학생, 동문 여러분이 농생대의 발전과 혁신을 위하여 다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많은 성원과 격려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저희 집행부는 최선을 다하여 열심히 할 것을 다짐하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무부학장 이석하 교수

우리 농생대의 교무부학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과거의 산업에서 지식 정보화로 급변하고 있는 지금의 사회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는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는 교수 및 강원의 지원을 위하여 교무 업무 실무를 개선하고 학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농생대 구성원들의 상호의견 교류와 소통을 보다 자유롭게 하여, 미래 농업생명과학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력양성의 기반을 다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열린 교무행정으로 무엇보다도 교직원과 학생 등 우리 대학 구성원이 즐거운 학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연구부학장 양상열 교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의 연구부학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우리나라 농학 발전을 선도해온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이 이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는 변신을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괄목할만한 성장을 보인 농생대 구성원들의 연구 역량을 기반으로, 이제는 보호받는 농학이 아니라 여

러 학문 분야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새로운 융합 학문 분야를 선도하는 농학으로 거듭나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 연구 환경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연구자를 위한 효율적인 연구비 집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농생대가 선도할 수 있는 공동연구의 장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교수님들의 기탄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학생부학장 윤혜정 교수

생각지 않은 자리를 맡게 되어 책임감도 크지만, 따뜻한 사람들이 모인 농생대의 일원으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한편 감사하게 느낍니다. 2,100여 명의 농생대 학생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각자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년의 임기 동안 장학 제도, 재학생 역량 강화 프로그램, 학교 생활 안내 등 학생 행정의 여러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이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농생대 구성원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각종 이벤트를 마련하고자 하며, 더불어 우수한 미래 농생대 인재 확보를 위해 청소년 대상 진로 캠프를 활발하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저를 비롯한 학생행정실의 노력이 농생대 재학생들이 행복한 대학 생활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획부학장 이인복 교수

준비가 부족한 상태에서 갑자기 기획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지만, 많은 교수님들의 조언과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큰 어려움 없이 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집행부에서는 전 집행부의 CALS VISION 2015 계획을 발전적으로 승계하여 향후 10년간 농생대를 이끌어 갈 새로운 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교육·연구라는 대학의 고유기능과 조화될 수 있는 수익사업 운영, 효율적이고 공평한 대학 공간 활용, QS 세계대학평가(농업분야) 순위 상승을 위한 대책 마련, 농생대 보유 연구 기자재 공유 등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기 동안 전 집행부 때부터 수행되어 오던 장기 사업들과 새로운 사업들을 조화롭게 추진하고자 하며, 이러한 노력들이 농생대 모든 구성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동만 교수, 이정재 교수 정년퇴임식



왼쪽부터 이정재 교수, 안동만 교수

우리 대학 안동만 교수와 이정재 교수(각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가 8월 31일부로 정년퇴임하여 9월 4일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이 개최되었다. 안동만 교수는 1980년 우리 대학에 부임한 이래 30여 년 동안 우리 대학 기획부학장, 서울대학교 평의원회 의원, 세계조경가협회(IFLA) 아태지역 회장, 한국인공지반녹화협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교육 행정과 연구에 힘써왔다. 특히 그는 학계 최초로 국립공원을 제외한 제주도 전 구역을 분석하고 보전 등급을 매겨 제주도 자연경관 보전에 기여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이정재 교수는 1994년 우리 대학에 부임한 후 20여 년간 서울대학교 학생처장, 교수협의회장, 한국농공학회, 한국농촌계획학회 등의 여러 경력을 거치면서 자유로운 소통과 그에 따른 학내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는데 주력하여 왔다. 그는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스스로 사업계획서를 쓰도록 하는 등 학생의 주체성을 기르는 교수법을 시도하여, 교육자로서 교수의 자세를 중시하는 행보를 보여왔다.

농업생명과학대학 건물, 얼마나 알고 계세요?



1층 정원

는 바로 옆에 농장과 목장, 수목원이 있어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으나, 건물이 노후되고 인근 비행장의 소음 문제도 있어 학생들의 생활환경과 면학 분위기를 해쳤다. 결국 1999년, 원래 자연대 운동장이 있었던 관악캠퍼스의 현재 부지로 캠퍼스 이전이 결정되었다. 교수진과 학생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관악캠퍼스 이전 이후 농생대는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농생대 구성원들에게 농생대 안의 숨겨진 공간에 대해 정보를 전달함과 동시에 공간이 가져다주는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우리 농생대의 공간 활용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한다.

다양한 시설, 농생대 안으로 들어오다

농생대 내부에는 유용한 공간들이 많이 있다.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1층·4층의 정원, 체력단련실, 여학생 휴게실, 농생대 전산원 외에도 사위실, 농학도서관 지하 공동학습실 등이 있다. 여기서는 이 공간들의 이용 정보와 팁을 하단의 표를 통해 소개하고자 한다.

	위치	이용시간	비고
체력 단련실	성록관 2층	평일 오전 6시~오후 10시	- 월 1만원(6개월 단위, 사정에 따라 더 짧은 기간도 가능) - 행정실(3층)에 신청서 제출 - 완납 후 학생증에 출입 권한 부여 - 사위 시설 및 간단한 세면도구 비치
농생대 전산원	생명관 1층 1008호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복사, 출력, 스캔 가능한 주변기기 보유 - 농업생명과학대학 정보원(880-4023)에서 관리 담당 - 본실물은 18시 이후 수거하여 사무실(1009호)에서 보관 - 점검 기간(방학 중 1주일간)에는 이용 불가
농학 도서관 공동 학습실	농학도서관 지하 1층 지하 서고	〈학기 중〉 평일 오전 9시~7시 〈방학 중〉 평일 오전 9시~6시	- 팀(3~6명)당 최대 3시간 이용 가능 - 전화(880-9040), 도서관 1층에서 예약 필수 - 학습실 1호, 2호(프로젝터는 1호실만 있음) - 책상, 의자, 칠판 비치
사위실	성록관 5, 7, 9층, 생명관 5, 7층 (남녀 화장실 사이)	제한 없음	사위기 1대, 헤어드라이기 비치
여학생 휴게실	농생대 중앙 로비 1층	평일 오전 7시~오후 6시	- 학생증에 사전 등록 필요 - 간단한 침구류와 평상
정원	농생대 1층, 4층	이용시간 자유	벤치, 탁자

아름다운 4계절을 즐기며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농생대

농생대 건물의 구조는 1~3층을 공유하는 쌍둥이 빌딩식이다. 캠퍼스 쪽으로는 통유리창이, 관악산 쪽으로는 정원이 구성되어 있다. 특히 농생대 정문 쪽 외벽은 유리로 되어 있어 3층 로비 공간에 외부 경치를 끌어들이고 실내에 훌륭한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1층 출입구의 외벽은 언덕으로 되어 철마다 피는 식물을 실내 공간에서 감상할 수 있다. 조경학과 정옥주 교수는

농생대 공간 활용의 아쉬운 점으로 관악산 전경이 보이는 서쪽 공간을 꼽으며 “농생대 건물 옆에 있는 관악산은 자연이 주는 아름다움을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자원”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조경학과와 경우, 조경학과가 사용하는 상록관 9층의 서쪽 테라스를 자체적으로 조성하여 관악산과 삼성산으로 이루어진 탁 트인 공간을 오롯이 활용하였다. 테라스에 서서 정면을 바라보면 마치 산 정상에 올라온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으며 철마다 봄이면 벚꽃을, 여름이면 신록을, 가을이면 단풍을, 겨울이면 눈으로 뒤덮인 산을 조망할 수 있는 공간이다. 또 여기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관악산에 조성한 연못과 공원, 농생대 건물 사이의 정원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다.

1층 및 4층에 구성된 정원은 교수님, 학생, 직원 모두가 삭막한 콘크리트 건물로부터 벗어나 자연을 통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연의 미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조성하여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지어졌다. 옆 건물의 학술림 사무실에서 직접 정원 관리를 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단과대와 구별되는 특별한 관리이다. 학술림은 매일 3시간 정도 정원수의 질병을 진단하고 새로운 개체를 심는 등의 관리를 하고 있다. 또 테라스 설치 이후 정원은 구성원들이 잠시 머리를 식히거나 담소를 나누기에 더욱 적합해졌고, 학과 행사나 간단한 바비큐 파티 등에도 이용되는 등 많은 학생들이 좋아하는 장소가 되었다.

하지만 일부에선 정원 이용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반응도 있다. 건물 사이에 조성된 정원은 구조와 건물 특성상 이용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다. 졸업생 박진영 씨(농경제 09)는 “거기서 떠들면 옆에 연구실들에 민폐일 것 같았다. 그리고 양 옆에 높이 솟은 건물에서 사람들이 쳐다보는 느낌이 들어 불쾌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정옥주 교수는 “나무 등으로 그늘을 만들어 이용자들을 시선으로부터 가려준다면 심리적 안정감을 주어 정원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 정원의 문화는 관리자가 정원을 조성하고 이용자는 정원을 감상하는 식의 분리된 것이 아니다. 이용자가 정원을 가꾸고 그 정원으로부터 다시 이용자가 영향을 받는 상호작용의 측면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농생대 정원은 이용자들의 관심과 애착을 통해 앞으로 더 좋은 정원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함께 높아가는 건물

농생대가 수원캠퍼스에 있을 때에는, 캠퍼스에 오랜 시간 동안 구성원들의 손길이 닿으면서 축적되어온 애착이 있었기 때문에 세월이 흘러도 학교를 다녔던 때를 떠올리면서 추억을 공유할 수 있었다. 이제 관악캠퍼스라는 새로운 공간도 30년, 50년이 흘러가도 이용자들을 심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농생대 구성원들 모두가 노력하여야 한다. 학생들이 농생대 건물을 단순한 수업 듣는 곳이라는 인식을 넘어, 각자의 20대를 보낸 소중한 공간으로 여기고 건물 곳곳에 관심과 애착을 가지고 각자의 추억을 건물 속에 만들어 간다면, 농생대 건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넓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추억과 함께 ‘높아’갈 수 있을 것이다.

▶ 농생대 학생지원단 제5기 방지원, 제5기 이상욱, 제4기 홍서정



미국 오레곤 임업대학과 MOU 체결

우리 대학은 7월 20일 대회의실에서 미국 오레곤 임업대학(College of Forestry, Oregon State University)과 양해각서(MOU) 조인식을 가졌다. 오레곤 주립대학은 2015년도 QS 세계대학평가 농임업부문 9위를 차지하는 등, 농학계 대학 중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대학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날 조인식에는 이학래 학장 및 부학장 등이 참석했으며, 오레곤 임업대학 측에서는 John Bliss 부학장과 정우담 교수가 참석하였다. 이날 체결된 양해각서는 두 대학 사이의 학술 및 학생 교환 협정에 관한 것으로, 조인식 후 참석자들은 우리 대학 식물병원, NICEM 및 수목원을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2회 조경디자인캠프

제22회 조경디자인캠프가 7월 20일에서 7월 31일에 걸쳐 200동 9층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캠프는 한국조경학회(회장 김성균 교수) 주최로 이루어졌으며 배정환 교수가 교장, 윤희연 교수가 교감 역할을 수행하였다. 총 44명이 참석한 이번 캠프는 '용산공원, 경계를 넘어-도시재생과 오픈스페이스'라는 주제로 총 3개의 스튜디오로 나누어 진행되어 용산공원의 동측 경계부와 남영동, 경리단길의 디자인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도시공원의 사회적 가치와 거버넌스(조경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이태원의 계층성과 인' 등 여러 전문가들의 다양한 특강도 같이 진행되었다. 2주 동안 진행된 캠프는 7월 31일 환경대학원에서 개최된 졸업식 및 시상식을 끝으로 마무리되었으며, 대상은 '불륨을 키워요(한국전통문화대 김명조, 청주대 윤병두, 서울대 유지민)' 팀에게 돌아갔다.



2015년 서울대학교 CALS 고등학생 진로캠프

2015년 서울대학교 CALS 고등학생 진로캠프가 남부학술림에서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열렸다. 이 캠프는 지역사회 공헌의 일환으로서, '변화하는 사회에서 고등학생이 자신에게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전남 광양 및 구례군 소재 고등학교 1학년 학생 약 60명을 대상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진로캠프에서는 농대 홍보단 CALSIAN이 프로그램 구성 및 진행에 참여하였으며, '1:1 진로 데이트', '나의 고딩 생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생이 삶의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학업 스트레스, 학습 및 생활관리의 어려움, 대인관계 등)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조언과 교육을 제공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만족도 조사가 실시되었고, 그 결과 5점

만점에서 4.71점을 획득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제11회 생명공학캠프 개최

제11회 생명공학캠프가 우리 대학과 서울신문사 주관으로 7월 27일부터 31일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 캠프는 청소년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생명공학캠프를 체험함으로써 생명공학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생명공학 NIE 프로그램을 통하여 융합적·창의적 사고 확장 능력을 배양하도록 인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캠프에는 전국에서 총 416명의 지원자가 몰렸고, 우리 대학 교직원과 서울신문사 단장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선발을 거쳐 합격한 총 90명의 중학생들이 참가하였다. 교육 프로그램은 생명공학 및 융합특강, 실험 및 실습, 관악수목원 현장체험, 서울대 박물관 및 미술관 견학, NICEM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특히 '생명공학 및 융합특강'과 '실험 및 실습' 프로그램에는 우리 대학 교수들이 직접 강의에 참여하여 전문성을 더했다.

이번 캠프는 1기(7.27.~7.29, 2박 3일) 45명, 2기(7.29.~7.31, 2박 3일) 45명으로 나누어져 진행되었으며, 참가 청소년들이 실생활에서 쉽게 체험할 수 없는 생명공학을 직접 느끼고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배양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제8회 서울대-청도대 심포지엄 개최

제8회 서울대-청도대 심포지엄이 7월 26일부터 28일에 걸쳐 SPC 농생명과학연구동에서 개최되었다. 이 심포지엄은 우리 대학과 중국 청도농업대학 간의 학술교류를 목적으로 매년 주제를 바꾸어 가며 한국과 중국에서 번갈아 개최되고 있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과 중국에서의 농식품산업 발전'을 주제로 하였고, 식품생명공학 및 농업·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양국의 교수 28명이 참가하여 학술 발표와 토론을 펼쳤다.



평창캠퍼스 하계 교육지원사업 개시

서울대 사범대 학생회에서 8월 3일부터 우리 대학 평창캠퍼스에서 평창관내 봉평중학교와 진부중학교에서 선발된 학생들과 함께 4박 5일간 '찾아가는 여름학교' 캠프를 진행했다. 이 캠프에서는 법률, 과학, 환경, 모의국가경영, 토크쇼, 토톤 등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학생 눈높이에 맞추어 진행되어 인기를 끌었다.

한편 평창캠퍼스 주관 하에 7월 27일부터 서울대 재학생으로 이루어진 국제자원봉사동아리가 미탄초등학교와 평창초등학교를 방문, 각 4박 5일간 '여름방학캠프'를 진행하였다. '여름방학캠프'에서는 독도는 우리땅, 마인드맵 만들기, 화학정원 만들기, 점묘화 그리기, 도레미송 배우기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학생들의 흥미를 돋우었다.

평창캠퍼스는 국내 최고의 국립대학으로서 우수한 인재를 활용함으로써 지역 교육발전에 이바지하고 지역주민의 평창캠퍼스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하여, 지난 2013년부터 교육지원사업을 전개하여 2014년 강원도교육청 교육기부 우수사례에 선정되는 등 대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농업생명공학의 이해' 교육 실시

우리 대학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는 8월 10일에서 13일에 걸쳐 SPC농생명과학연구동에서 '농업생명공학의 이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서울 관악구, 동작구 소재 고등학교의 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10~11일(1기), 12~13일(2기)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미래의 주역인 고등학생들에게, 급격한 기후변화 및 인구 증가에 따른 식량문제의 해결수단으로서 농업생명공학 기술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번 교육은 '농업이 직면한 문제', '생명공학작물의 유용성' 등의 이론 강의와 'DNA 추출', '미생물 형질전환' 등의 실습 프로그램을 적절히 조화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였다.

1기에 참석한 한 고등학생(여, 17)은 "강의를 통해 생명공학작물(GMO)의 필요성을 느꼈고, 실습을

통해 해충저항성 GMO벼와 야생형벼의 차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이 교육이 진로를 설계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는 앞으로 교육 범위를 서울시 전체로 확대하여 보다 많은 고등학생과 교사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2015 종자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2015 종자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 실시

우리 대학 식물유전체육종연구소는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국립종자원과 공동으로 '종자산업 전문가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개인육종가와 품질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참석자들은 종자산업 분야별 이론과 품질관리 관련 기술을 교육받는 한편 교육생 스스로 육묘의 품질인증, 종자에 대해 토의하고 개인별 업무활용 계획서도 발표했다.

교육 운영자들은 "이번 교육으로 종자산업의 현안을 이해할 수 있었고, 특히 국제협약의 이해를 통해 해외유전자원 사용시 대응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자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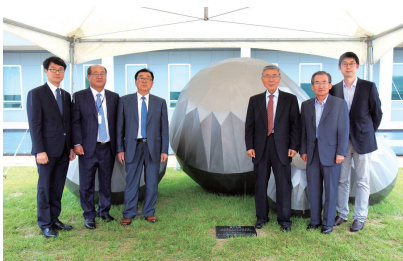


제1차 청정육종번식사업회의 개최

우리 대학 실험목장은 8월 19일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소회의실에서 제1차 '청정육종번식사업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서울대 수의대, 강원대학교, 농협젓소개량사업소, (주)카길,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주)바이오라이트가 참가하여 사업소개, 참여기관 역할분담 및 추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실험목장이 주도하고 있는 청정육종번식사업은 실험목장의 질병청정화와 동물자산의 품종개량을 목표로 시작되었다. 이 사업을 위해 실험목장은 한국축육개량협회에서 추진하는 낙농검정사업에 참여하였고, 올해 10월에는 농협젓소개량사업소로부터 낙농청정육종농가로 지정될

예정이다. 실험목장은 향후 본 사업의 범위를 평창 및 강원도 지역까지 확대하여 지역농가의 경제 및 축산업 발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평창캠퍼스,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 행사

8월 25일 평창캠퍼스에서 발전기금 기부자 초청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운한 제8대 동창회장이 평창캠퍼스에 대강당 음향시설을 출연한 것에 대한 현판식이 있었고, 이현수 제9대 동창회장이 제작비를 출연하고 우리 학교 미래 이종건 교수가 디자인을 맡아 탄생한 평창캠퍼스 준공 기념 조형물 제막식이 거행되었다.

『BULB』로 이름 붙여진 이 조각은 '생명의 근원인 씨앗에 잠재된 생명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형상화한 작품으로, 평창캠퍼스의 무궁한 발전을 상징한다. 이 조각은 평창 캠퍼스 본관 좌측에 설치되었으며 작품의 크기는 2800×2000×1500(h) mm로 알루미늄 재료에 우레탄 도색으로 마무리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제8대, 제9대 동창회장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고, 비가 오는 날씨에도 김태

윤(농경제 94) 대외협력실장이 캠퍼스 안내를 하였다.

농생대 연극동아리 향연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들여다보다

농생대 연극동아리 '향연'(향록연극회)에는 현재 30여 명의 재학생이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신입생 워크숍 공연과 정기 공연을 하고 있다. 향연을 돋보이게 하는 것은 이들의 공연 뿐 아니라 공연 준비 과정에서 엿볼 수 있는 연우(향연에서는 동아리 부원을 '연우'라고 부른다)들 사이의 끈끈한 인연이다. 이러한 끈끈함이 어디에서부터 내려오는지 향연의 과거를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향연이 나아갈 방향까지 살펴보고자 한다.

향연에는 50년의 역사가 흐른다

농생대 연극동아리 향연의 역사는 무려 5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1965년 11월, 수원캠퍼스의 한 건물에서 스무 명 정도의 학생들이 연극반 활동을 위해 모였다. 같은 해 12월이 연극반 학생들은 첫 공연을 올렸고, 그 후 50년의 세월 동안 이 연극반의 연우들이 수많은 공연을 올려오고 있다. 1966년 이 연극반에는 '향록연극회'라는 이름이 붙었다. '향록'이란 이름은 '상록을 넘어 서자'는 뜻으로 상록의 '록'자에 '향(向)'이 붙어 지어졌으며, 이 이름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향록연극회의 연우들은 순수하게 연극에 열정을 다했고 교내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공연을 이어갔으며, 이때 활동했던 선배 중에는 실제로 연극의 길로 들어선 분도 있다. 향록연극회는 그 후로도 교내외로 인정을 받아 활동을 계속 중이다.

관악으로 이어진 향록연극회



공연 장면

농생대가 수원캠퍼스에서 관악캠퍼스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향연도 관악캠퍼스로 올라오게 되었다. 이때 향연은 수원캠퍼스에서 가져온 무대기기와 소품을 놓을 공간인 동아리 방

을 마련하느라 어려움을 겪었다. 수소문 끝에 두레문예관 3층에 동아리 방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 동아리 방은 지금도 향연의 공간으로 유지되고 있다. 관악캠퍼스에 터전을 잡고 공연을 준비할 때는 연우 수가 부족해 어려움도 겪었지만, 차차 연극을 좋아하고 즐기는 학생들이 모여 공연을 계속할 수 있었다. 특히 1학년 때 동아리 활동을 시작했던 안경목 연우(응용생물학 03)는 오랫동안 향연에서 활동한 만큼 향연에 대한 애착이 크다. 안연우는 "2003년 마지막 수원에서의 공연이 기억에 남는다. 공연을 위해 수원에 내려가 밤늦게 까지 무대를 설치하였는데, 작업은 고되었지만 재미있었다. 수원에서 이를 정도 공연을 하고 무대의 일부를 관악으로 옮겨와 관악에서도 작은 공연을 진행했는데, 졸업생 선배님들이 관악으로 공연을 보러 오셨을 때의 긴장감이 아직도 생생하다." 라고 말하며 그 시절을 회상했다.

향록연극회, 좋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 끊임없이 성장하다

향연에서는 현재 신입생 워크숍과 정기공연 등 연 3회의 공연을 올리고 있다. 공연을 위해 만들어진 연극회인 만큼 연우들은 공연 준비에 열정적이다. 보통 두레문예관 공연장에서 3일 정도의 연극 공연을 올리지만, 그 준비에는 3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 무대 위에서 직접 연기를 하는 배우는 물론,

전체적으로 배우를 지도하는 연출자와 극의 기획자, 그리고 무대, 소품, 음향, 의상, 조명, 홍보를 담당하는 스태프들 모두 연극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연우들은 제한된 장소와 비용으

로 좀 더 나은 공연을 올리기 위해 직접 무대 구도를 디자인하고 소품을 제작하는 등 항상 고군분투하고 있다. 연극 준비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만큼, 막이 내릴 때의 기분은 직접 경험한 사람이 아니어서는 느낄 수 없다. 올해 향연 활동을 시작해 지난 6월 두레문예관에서 공연을 올린 최성우 연우(식품생명공학 15)는 "연애를 끝낸 기분이었다.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생활을 하면서도, 종종 공연 준비를 하던 시간들과 무대 위에 있던 순간이 떠올라 다시 극에 참여하고 싶어진다." 라고 말하며 잊을 수 없는 순간을 떠올렸다.



홈커밍데이와 동문회를 통한 끊임없는 선후배 간의 교류

매년 10월, 향연은 과거 향연에서 활동했던 선배들을 학교로 초대하는 홈커밍데이를 열고 있다. 이때 향연에서 활동 중인 재학생들이 선배들에게 직접 전화로 연락을 드려 홈커밍데이에 초대한다.

65학번 대선배부터 자녀와 함께 오시는 선배, 그리고 최근 졸업하여 대학원생인 선배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선배들이 모여 연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추억을 회상한다. 재학생들은 선배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소개하고 직접 준비한 공연을 보여드리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또한 2015년은 향록연극회 창립 50주년이다. 올해 3월, 50주년을 기념이라도 하듯 선후배들의 노력 끝에 향록연극회 동문회가 설립되었다. 동문화 설립은 평소에도 선후배 간의 소통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동문화 자리에서 향연 선배들은 앞으로 후배들의 공연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이 후원할 것을, 재학생 연우들은 선배들과 관객들에게 좋은 공연으로 보답할 것을 약속했다.

향연 임원진은 "연우들 간의 끈끈한 정은 향연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지만, 앞으로는 '세상과 호흡하는 향연'이라는 좀 더 큰 비전을 실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향연은 공연을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며 연극을 통해 끊임없이 관객과 소통하며 그들에게 재미와 감동을 전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향연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50년 동안 열정을 다해 활동을 계속해왔고, 다양한 감정과 이야기를 관객들과 공유해 왔다. 향연은 앞으로도 좋은 연극을 선보이고 선후배 간의 교류도 이어갈 것이며, 이로써 긴 역사를 가진 향연의 행보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이다.



향연 신입생워크숍

한국스카우트 연맹 총재 함중한(농업교육 · 63) 동문을 방문하다



함중한(농업교육 · 63)

함중한 동문은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상지대학교 교수,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강사로 활동하며 학생들을 가르쳤다. 또한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으로 정계에 진출하였으며, 뒤이어 13대 · 15대 국회의원, 강원도지사를 역임하였다. 그는 정치 뿐 아니라 청소년 교육에도 큰 관심을 가져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대표이사, 국회교육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였으며, 현재는 한국스카우트연맹의 총재로 재직하고 있다.

약자를 위해 걸어온 길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해온 함중한 동문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활동이 무엇이었는지 묻자 그는 ‘모든 활동이 기억에 남고 보람찬 활동이었다’고 답하며 각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거쳐 온 직종과 직위는 여러 가지였지만, 그의 답변에서는 공통적으로 약자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돋보였다. 상지대학교와 서울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던 함 동문은 원주 야학에서 사회복지 학과장을 맡아 극빈 가정에 대한 생활지도를 하게 되고, 이는 함 동문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된다. 생활지도를 하던 함 동문은 부모님을 잃은 한 형제의 안타까운 모습을 목격하게 된다. 6살짜리 아이가 난방이 되지 않는 찬 방에서 덜덜 떨며, 일하러 간 8살짜리 형을 기다리는 모습이었다. 이 광경에 충격을 받은 그는 가난한 아이들의 복지와 교육을 개선하기 위해 힘쓰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음을 깨닫게 된다. 함 동문은 자신이 정치가가 된다면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극복하며 자신이 원하는 만큼 어려운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이에 정치가가 되기로 결심한다. 이런 확고한 결심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바탕으로 그는 1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 함 동문은 농수산위원으로서 국회 활동을 시작했다. 당시 농산물의 수매가는 매우 모호한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었다. 함 동문은 자신의 경제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농산물의 수매가를 산정하는 명확한 기준을 세울 것을 정부에 요청하였다. 농산물경제기획원이 이를 받아들여 수매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정해지게 되었다. ‘국회의원도 각각의 전문분야가 있어야 국민들에게 진정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함 동문에게서, 국회의원으로 가졌던 사명감과 우리나라의 농업 · 농민에 대한 진심어린 고민을 엿볼 수 있었다.

청소년에 대한 애정과 믿음

현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을 만큼 청소년 문제에 관심이 많은 함중한 동문은, 청소년기는 개개인의 역량과 기본적인 소양 등 많은 부분이 결정되는 시기이므로 청소년에게 여러모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투자가 학업 외의 분야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국가적 차원의 투자가 부족한 점에 대해 안타까워했다. 함 동문은 핵가족화로 인해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교육을 받을 기회가 줄고, 전통적인 가정의 순기능을 공교육에서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스카우트와 같은 청소년 단체가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소년 단체 활동을 통해 ‘집단 예절’, ‘우애’, ‘정직’과 같은 여러 덕목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청소년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 동문은, “굶餓이 같은 미물들도 자기 자리, 자기 먹이를 잘 찾는다”며 “요새는 옛날과 달리 이 세계를 스스로 쉽게 둘러볼 수 있는 시대이니, 부모는 앞에서 가르치기보다는 뒤와 옆을 봐주고, 아이들이 스스로 앞을 보고 나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청소년의 자주성에 대한 믿음을 내비쳤다. 또한 “자기가 싫어하는 걸 억지로 붙들고 있다가 인생을 헛되이 보내는 경우가 많다”며 청소년 개개인의 적성과 흥미를 살리는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후배들에게 한마디

우등상을 타며 졸업할 만큼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보낸 함중한 동문. 그래서인지 함 동문의 말에서는 농대와 농업에 관한 애정과 자부심이 듬뿍 묻어났다. “농업은 미래 첨단 산업이야”라며 일반인의 선입견과 대치되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한 함 동문은 “농업의 분야가 무궁무진하기에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고 말하며, 그 일례로 신 품종 개발을 들었다. 특히 한국은 기후와 토양이 매우 다양하여, 이런 다양한 환경 여건의 조합 하에서 자유롭게 농산품 재배 실험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실험들을 바탕으로 해외에서는 생산이 불가능한 우수한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 농업은 가능성이 무궁무진하고, 경제적인 가치를 창출하기에도 좋은 산업이라고 말했다.

함중한 동문은 청춘들의 삶의 태도에 대해서도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함 동문은 “내일이 있다고 믿을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심장한 말로 운을 뗐다. 과거를 평가하고 반성하는 것과 미래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것이 모두 현재에 이루어지는 일이니,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조언하였다. 오늘을 충실히 살며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한다면, 결국엔 오늘과 다른 ‘새로운’ 내일, ‘변화된’ 내일을 맞게 되기 때문이다. “항상 새로운 내일을 향해 밟고 나아가다 보면 하루도 ‘헛 날’이 없고 ‘새 날’입니다. 늘 ‘새 날’을 위해 살아가야 하지 않겠나요? 새 날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CALS Newsletter의 교수 릴레이 도서 추천

열네 번째 주인공은 산림과학부 소속 김현석 교수!

김현석 교수는 1993년 우리 대학 입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과 미국 워싱턴대학교에서 각각 석사과정을 마친 후, 미국 듀크대학교에서 박사과정과 박사후 과정을 거쳐 2011년에 서울대학교로 부임했다. 그 후 4년 간 산림과학부 산림환경학전공에서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다. 김현석 교수가 전공한 '수목생리학'은 수목 성장의 기본 원리와 함께 환경조건에 따른 수목의 여러 가지 대사과정을 다루는 분야로서, 김 교수는 이 분야의 지식을 바탕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수목들의 생리·생태적 변화에 연구하고 있다. 현재는 산림청과 연계하여 한국의 기후에 맞는 차세대 조림수종 연구와 도시농림 스마트 사업단에 참여 중이다.



김현석 교수
(산림환경학 전공)

교수님이 현재 전공을 택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현석 교수도 청소년 시절 어떤 전공을 선택할지, 나아가 어떤 직업에 종사할지에 대해 많은 고민과 갈등을 겪었다. 이런 그의 고민을 해결해 준 것은 바로 아버지의 조언이었다. 산림이 발달한 독일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아버지는 입학과를 권유하였고, 김 교수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께서 과수원을 운영하셨기에 나무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고 관심이 가서 입학과에 지원하게 되었다”며 현재의 전공을 선택한 동기를 설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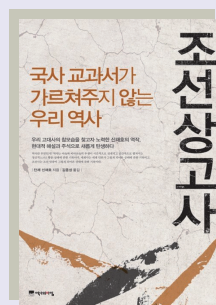
교수님의 대학생활은 어떠했습니까?

김현석 교수는 대학생활을 “많은 동아리활동을 했던 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사진을 좋아해 서울과 수원에서 사진동아리에 가입했고 3학년 때는 태권도부 활동도 하였다”며 즐거웠던 동아리활동을 회상했다. 김 교수는 “입학할 때부터 박사과정까지 공부할 것을 다짐했었기에 학부생 때부터 실험실에 참여하였고, 진로를 빨리 결정한 덕분에 학업 이외에 별다른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었다”며 “요즘 학생들이 여러 압박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는데, 특히 방학 때 계절학기를 너무 많이 수강하느라 다양한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다”고 덧붙혔다.

학생들에게 한마디

김현석 교수는 농생대 학우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하려 하지 말고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며 모든 종목에서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라도 한 가지 종목에 몰두하는 것을 예로 들었다. 또한 김 교수는 “쉬운 것만 하려 하지 말고 큰 포부를 가져야 한다. 쉬운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 금방 따라잡히기 마련이니, 경쟁보다는 도전을 통한 독점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교수는 “나는 우리 학교 학생들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있다”며 “일회일비하지 않고 꾸준히 정진한다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응원하였다.

도서 추천



『조선상고사』 (저자 : 신채호)

〈조선상고사〉는 일제강점기의 역사가 신채호가 ‘조선사’라는 제목으로 〈조선일보〉에 연재한 글을 엮은 책으로, 단군조선부터 삼국시대까지를 다룬 글이다. 김현석 교수는 “농생대 학생들이 각자의 전공 이외에도 폭넓은 지식을 쌓았으면 하여 이 책을 선택했다”고 선정 이유를 설명했다. 또 최근 중국과 일본의 역사왜곡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정세도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로 꼽았다.

“무엇보다 중국 역사서에 엄연히 기록된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려면 훨씬 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신채호”

김현석 교수는 본인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인용하면서, 교묘하게 이루어지는 역사왜곡을 비판하였다. 김 교수는 “농생대가 아닌 수동태로 기록하거나, 사건이 일어난 연도를 바꾸는 등 자신에게 유리한대로 역사를 왜곡하는 모략을 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역사가 얼마나 찬란했는지를 인식하고,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바뀌는 게 없다는 깨달음을 얻기 바란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김현석 교수는 저자의 태도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또한 강조하였다. 김 교수는 “저자의 실증적 태도는 연구자의 입장에서 본받을 가치가 있다”며 “자연과학분야의 학생들은 이러한 태도를 체득한다면 앞으로 학업을 이어갈 때 좋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라고 덧붙이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다음 호의 도서 추천 주인공은?〉

김현석 교수에게 다음 호의 주인공을 추천해달라고 부탁하였다. 그가 추천한 주인공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김학진’ 교수. 김학진 교수의 추천도서는 다음 호에 공개!

〈2015. 07. 19. 뉴시스〉

도, 서울대에 수십억 원 지방세 부과…농대 따복기숙사 영향받나

도 고위층, 지방세 만회 조건 '상록사' 유상임대 제안

경기도가 서울대학교 수원 농업생명과학대학(농대) 용지 취득세 등 지방세 수십억 원을 서울대에 부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와 서울대가 농대 옛 기숙사 자리에 공동 추진하는 '따복(따뜻하고 복된)기숙사' 건립에 이번 지방세 부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19일 도와 서울대 등에 따르면 도와 수원시는 3월 서울대에 농대 용지 취득세 21억 원과 재산세 9억5,000만 원 등 30억 여원의 지방세 부과를 각각 예고했다. 이는 서울대가 2012년 1월 농대 땅을 목적(학교) 사용하는 조건으로 정부로부터 무상으로 받아놓고 조건 대로 사용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조건 이행 등 지방세 감면 기간을 3년까지 두고 있다. 서울대는 농대 땅을 3년이 경과한 올해 1월까지 목적 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지방세를 감면받지 못한 것이다. 서울대는 하지만 국립대의 경우 국가 기관으로 비과세 대상이라며 곧바로 두 기관에 이의(과세적부심)를 제기했다. 도와 수원시는 5월 각각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서울대의 주장을 불채택했다. 서울대가 정부의 무상양여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애초 판단을 그대로 적용했다. 서울대는 최근 30억 여원의 지방세를 납부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대가 낸 지

방세를 만회하는 차원에서 도와 서울대가 공동 추진하는 따복기숙사의 유상임대 얘기가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따복기숙사는 도내 대학생 수백 명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옛 서울대 농대 기숙사인 상록사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성낙인 서울대 총장은 4월 6일 공동 발전 협약도 했다.

도 고위층 관계자는 도 지방세 심의위 회의가 열린 5월 20일 서울대 관계자와 만나 서울대의 상록사를 도에 유상임대하는 방식이면 납부한 지방세(30억 여원)를 만회할 수 있다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도의 유상임대 제안에 대해 내부 검토 중으로, 아직 공식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대 관계자는 "도의 상록사 유상임대 제안을 검토는 하지만,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다는 따복기숙사 건립 취지를 무색케 할 수 있어 수용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서울대와 한 따복기숙사 건립 협약에는 상록사 임대 방식이 나와 있지 않다"며 "상록사 리모델링과 별개로 서울 농대 내 도 땅에 또 다른 따복기숙사 건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승호 기자

〈2015. 07. 24. 농민신문〉

농고 · 농대 어떻게 개편해야 하나



임정빈 교수

- 적성맞춤 학생 선발...대학, 지역별 특화
- 임용교사, 농업실습 한계...전문교사 총원 필요
- 교수평가 개선...현장전문성 높여야 인재 양성
- 정부, 창조농업선도고 설립 등 기능 강화 추진

농고 · 농대 졸업생의 농업분야 진출 기피는 미래농업에 큰 약재다. 농업을 미래성장산업화하려고 해도 미래농업을 이끌어갈 핵심 인재를 확보할 수 없어서다. 농고 · 농대에 대한 개편 요구가 거센 이유다. 대대적 개편을 통해 농고·농대를 핵심 농업후계인력의 산실로 육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악순환 구조 지속 = 농고 · 농대졸업생이 영농을 기피하는 것은 농사로 성공할 가능성을 낮게 보기 때문이다. 농산업분야에 취직하려고 해도, 산업규모가 작아 취직할 곳도 마땅찮은 게 농고 · 농대생의 현실이다. 이렇다 보니 농고 · 농대에 우수인력이 들어오지 않고, 우수 졸업생이 적다 보니 농산업분야 취직도 제대로 되지 않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농고 · 농대가 비전 없는 학문을 가르치는 곳이란 인식이 확산되면서 학교명칭에 '농업'이 빠지는 것도 큰 문제다. 일부 농고는 마이스터고로 전환했고, 상당수 농대는 '생명', '환경' 등의 명칭으로 바꿨다. 실제로 농과대학장협의회가 2013년 34개 농업 관련 단과대학 명칭을 조사한 결과 9개 단과대만이 '농업'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업전공에도 '농업' 명칭이 빠지는 추세가 뚜렷하다.

◆농고, 학생 · 교사 선발 · 관리 개선해야 = 특성화고인 농고는 대부분 전기에 광역단위로 학생을 선발하는데, 성적이 합격선을 좌우하는 게 일반적이다. 경기 여주지역 농고 등 일부 농고가 영농가산점, 기업승계희망자 특별전형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비중이 낮은 편이다. 농업분야 적성과 흥미를 가진 학생의 유치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농고 교사는 임용교사로 선발함으로써, 농업실습 지도능력을 갖춘 교사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다. 개방형 학교장 공모제, 우수교사 초빙 등을 통해 전문성 있는 교사의 충원이 가능하지만 거의 활용되지 못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농대, 지역별 특성화해야=농대는 지역별 특색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대부분 비슷비슷한 형태로 운영돼 특정분야에 대표성 있는 농대를 찾기 힘든 상황이다. 농대가 인정받지 못하고 농대생이 인기가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농대를 지역별로 특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지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농대가 농업관련 학문을 모두 취급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화를 통해 전문화해야 한다"면서 "특정품목을 자세히 알려면 특정농대에서 공부하는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대 교수의 평가방법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온다. 외국 유명학술지에 실리는 논문 게재편수로 평가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전문성 있는 실습 위주 교수들이 불이익을 받는다는 비판이 나온다. 농대교수 평가에 논문과 함께 실습 · 전문성 등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일부 학생들은 농대를 의사나 약사가 되기 위해 의학전문대학원이나 약대로 옮기기 위한 간이역으로 인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한 농과대 교수는 "화학 · 생물 등 의대나 약대의 필수과목을 농대에서 배운 뒤 의학 혹은 약학대학원으로 옮기는 학생이 종종 있다"며 "이들 학생이 장학금을 타는 경우도 많아 농대의 면학 분위기를 심각히 해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농식품부, 농고 · 농대 개편 착수 = 농식품부는 농고 · 농대를 위주로 농업직업교육체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농고 · 농대생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농고 · 농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우선 2017년까지 3개의 창조농업선도고를 만들 계획이다. 창조농업선도고는 기존 농고의 문제점을 보완한 것으로, 영농의지가 있는 학생들을 학급당 20명씩 특별전형으로 뽑아 정예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개방형 학교장 공모제와 도제식 실습교육도 도입된다. 농대에는 영농의지가 있는 농대생을 대상으로 전문기술과 현장실습이 강화된 별도 과정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016년도에 5개 농대에 영농창업특성화사업 과정을 사업단 형태로 신설할 방침이다. 도제식 실습교육, 해외 인턴십, 농업전문경력 인증제 등을 통해 농업계열 취 · 창업 비율을 대폭 높이는 게 목표다.

남우균 기자

〈2015. 08. 25. 메트로신문〉

서울대 평창캠퍼스,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준공 · 상록학생생활관 개관식



동문 전문 수의사 양성을 위해 설립됐다. 이어 상록학생생활관은 내년 9월 완

서울대학교(성낙인 총장)는 27일 평창캠퍼스에서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 준공식과 상록학생생활관 개관식을 연다고 25일 밝혔다. 산업동물임상교육연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 대한수의사회 · 서울대학교가 공동 지원으로 수의 · 축산 전공 학생과 수의사들의 임상교육을 담당해 산업

공을 목표로 지상 3층, 지하 1층으로 완공됐다. 1단계로 완공된 생활관은 53개실을 87명을 수용할 수 있으며 추가로 42개실 규모의 72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사가 진행중이다. 서울대 국제농업기술대학원 측은 "이번 생활관 개관으로 개발도상국의 우수한 공무원과 유학생 유치가 가능해졌고 우리나라의 선진 농업 기술을 국제 사회에 전수해 세계 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성낙인 총장 ·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 · 심재국 평창군수 등 학내외 귀빈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북현명 기자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기금출연 소식

기금 출연해 주신 분들

다음은 지난 2015년 6월 1일부터 2015년 8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우리 대학에 기부해 주신 분들입니다.

기금출연 (2015. 06. 01 ~ 2015. 08. 31.)			누적금액 : 155,140,000원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이상	10만원 이상	
익명	131,140,000	서울대 농생대 2013학번 학부모회	이성규(농경제)	500,000
		(주)누보		
		(주)프로첼코리아(수의학)		
		서울신문사		
		(주)한성T&I		

기금출연(2000. 01. 01 ~ 2015. 05. 31)					누적금액 : 6,132,643,405원	
(유)PPG코리아	고종열 (87)축산학(박사)	김영배 (85)축산학	류덕희 (농경동제약 대표이사)	손정익 (75)농공학		
(재)목은문화재단	고희중 (76)농학	김영복 (72)농공학	류순호 (55)농화학	식물분자유전육종센터		
(재)유연정학회	고희중, 김영남, 안희성, 노희명 기부보험 만기액	김영상 (58)농학	무명 (55)농공학	신재익 (60)농화학		
(주)녹색식물연구소 (78)원에	광주MBC	김영성 (59)농경제학	문성훈 (86)식품공학	신젠타코리아(주)		
(주)프로첼코리아	구자환 (81)농학	김영호 (73)농생물학	문지애 (77)식품공학	신한풍 (59)농학		
(주)내추로바이오텍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김유용 (83)축산학	문태화 (71)식품공학	신현호 (79)원예학		
(주)넥스캡	권숙향 학부모	김유용, 윤원희	바이오사이드테크	신희순 (69)잠사학		
(주)생명의나무	권철 (60)농학	김인식 (64)농학	박관화 (62)농화학	실험누리과학관 (82)대학원		
(주)서울신문사	권철 (59)축산학	김장원 서울대직원	박기주 (69)농업교육	심용섭 (70)농업교육		
(주)솔에서	김경옥 (68)농공학	김정해 (75)농화학	박낙희 (83)농업교육	셀테크		
(주)신농	김관수 (82)농경제학	김종무 (59)농학	박수철 (82)산림자원	안동만 조경학 교수		
(주)아데나	김광호 (68)식품공학	김진모 (81)농업교육	박시우 (65)농생물학	안동환 (86)농경제학		
(주)케이티앤에프	김국형 (83)농생물학	김진우 (2006)산림과학부	박원규 (60)농공학	안성규 (76)임학		
(주)하이스	김규옥 학부모	김진의 (59)축산학	박은우 (73)농생물학	안원영 (55)임학		
(주)엘씨에스	김근숙 농화학	김태수 (66)임학	박정현 (64)농업교육	양태진 (85)원예학		
53학번 동교회	김기선 (74)원예학	김현중 (83)임산공학	박종국 (57)농화학	양호석 (57)농화학		
59학번 동교회(재미회원)	김동암 (52)축산학	김호택 (58)농경제학	박창서 (61)농경제학	엄기덕 (46)농화학		
69학번 동교회	김동윤 (48)농경제학	김희발 (86)동물자원과학	박창호 (58)임학	에스엠에이엔지니어링(주)		
69학번 여성동교회	김동태 (62)농경제학	나승일 (81)농산업교육	박필선 (90)산림자원학	에스워드(주)		
70학번 동교회	김명중 (70)임산공학	노희명 (76)농화학	박효근 (59)농학	연은실		
71학번 동교회	김무열 (64)농공학	농생대 기획실	반성환 (50)농경제학	염동해 (74)조경학		
81학번 원예동문동교회	김민균 (82)농화학	농생대 동창회	배동걸	오기봉 (78)농화학		
가나바이오텍(주)	김병동 (62)농학	농생대 수목원	백남천 (81)농학	오평환 장학금 적립금		
간접연구경비회계지원금	김봉영 에버랜드사장	농생명과학연구정보센터	백중현 (79)임산가공학	온경용 (79)원예학		
강미정 농기정학	김상근 농업교육	농업생명과학연구원	부경생 (60)농생물학	우리농장		
강병철 (86)원예학	김상돈 (44)축산학	농업생물신소재연구소	브이애프티	우무일 (64)임학		
강석근	김석구 (55)임학	농학과 동교회	서문원 (74)농학	우보영 (57)임학		
강신백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 교직원	김성배 (85)농생물학	농협중앙회	서민영 서울대직원	우석상 (83)임학		
강예원 학부모	김성수 (63)농업교육	농화학 동문회	서병문 (69)농공학	원광엠에프디(주) (86)농화학		
강창희 (66)농경제학	김성일 (76)임학	도운회 (61)농화학	서울신문사	원후식 (56)농생물학		
고 강석권, 고 최하자 유족	김수민 (2003)환경재료과학	동 문	서진호 식품생명공학 교수	유상렬 (78)식품공학		
고 이은웅 교수 유족 (72)농경제학	김영권 농학	동화특수산업(주)	서학수 (65)농학	유상철 (64)축산학		
	김영도 (68)축산학	류관희 (63)농공학	성로경 학부모			

기금출연(2000. 01. 01 ~ 2015. 05. 31)

유원예코사이언스	이우신 (75)임학	정진화	㈜지지에프바이오	홍종일 (80)축산학
유원예코사이언스㈜	이인모 (65)농경제학	정현석 (63)농화학	㈜주비로	홍종혁 농경제학 석사 홍준표 조부
유한김벌리	이인복 지역시스템공학 교수	정희석 (60)임학	㈜투플러스코스팜	화인엔터프라
윤계섭 (53)임학	이장희	제10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프로챌코리아	환경지도자고위과정
윤여창 (74)임학	이재갑	제11기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하이스	황인규 (76)농생물학
윤용인 (57)농가정책	이재진 (65)농학	제연호 (66)천연섬유학	㈜한국애그로바이오	CALSP
윤원희 김유용교수부인	이전제 (70)임산가공학	조도현 서울대직원	㈜한성T&I	KBS한국방송
윤익건설	이정식 (69)원예학	조민성 父 (97)농경제학사회학부	㈜해법테크	MBC문화방송
윤혜정 (90)임산공학	이정훈 父 (2000)식물생산과학부	조성인 (77)농공학	㈜현우그린	RNL생명과학㈜
윤희진 (62)축산학	이종영 (70)임산가공학	조재영 (39)농학	㈜FC	녹색지도자최고위과정
이건호 (67)농경제학	이준호 (74)농생물학	조중수 (66)잠사학	㈜SK텔레콤	고려시스템
이경국 (78)	이중용 (77)농공학	㈜이관희 프로덕션	직업과정CEO 과정	㈜한성T&I
이광희 (75)농학	이철영 한백과학 대표	㈜고추와육종	진정우 학부모	우상규
이기훈 (91)천연섬유	이철우 (61)농경제학	㈜내츄로바이오텍	차상석 연세대	한국방송공사
이내수 (58)농경제학	이춘만 (73)임학	㈜녹색식물연구소	창업지원센터	㈜고추와육종
이든구 (65)임학	이충한 (2009)동물생명공학	㈜누보	채수군 (54)잠사학	이종윤(고 이진욱 父) 김덕연
이동근 (82)조경학	이태호 (74)농경제학	㈜밀투밸런스	채영암 (60)농학	㈜에이티랩
이동찬 (82)농공학	이필우 (53)임학	㈜바이오포아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제노레버코리아
이두이 (66)농학	이한강 (69)임학	㈜베스트텍코리아	최고농업정책과정 14기	한국마사회
이득용 (52)농경제학	이현수 (60)농화학	㈜블루비에스	최고농업정책과정 15기	프로챌코리아
이명훈 (69)농경제학	이형주 (66)농화학	㈜블루인바이오먼트엔텍	최상호 (78)식품공학	㈜누보
이무하 (67)축산학	이홍 (70)농화학	㈜비르앤바이크로	최연홍 (56)잠사학	㈜베스트텍코리아
이미경 (74)농화학	이희석 (57)농생물학	㈜비비씨엔에프	최윤재 (73)축산학	(주)서울신문사
이미소 (56)농학	이희재 (78)원예학	㈜삼우종합건축사무소	최인규 (80)임산공학	㈜한성T&I
이병근 (67)농경제학	일본동문화	㈜생명과학기술	최정우 父 (2000)생물자원과학부	㈜누보
이병목 (64)농생물학	임경순 (54)축산학	㈜센소메트릭스	최진용 (84)농공학	㈜두타연
이병일 (57)원예학	임승빈 조경학 교수	㈜숨에서	최학근(최윤희 학부모) (2010)응용생명	㈜비비씨엔에프
이병창	임용재 (67)농경제학	㈜신택	최홍림 (71)농공학	㈜블루비에스
이삼희 (66)농화학	임용택 (54)농경제학	㈜사이퍼인텔리전스	투플러스코스팜㈜	㈜엘씨에스바이오텍
이상기 (79)농화학	임정목 동물생명공학 교수	㈜씨에스텍	패션푸드㈜	오펜한장학금 기본 적립
이상영 (65)잠사학	장우상 (63)잠사학	㈜아데나	프로챌코리아	㈜고추와육종
이상우 (89)임학	장진성 (78)임학	㈜에스씨아이	피타코이드㈜	배동걸
이상훈 (88)조경학	장창순 (53)농경제학	㈜에스씨에프	하종규 (75)축산학	창업지원센터
이석하 (78)농학	장태평	㈜에스이오	한국마사회	농식품경영유통최고위과정 3기
이성우 지역정보 교수	장학균 학부모	㈜에이티랩	한국전파기지국㈜	유상열
이수만(익명요청) (71)	장휴동 (59)농경제학	㈜에이피디	한상율 (72)농업교육	김경욱
이수정 (65)농가정책	재일동창생	㈜에코엘이디라이트	한성T&I	김학진
이승구 (66)농화학	전창후 (83)원예학	㈜에프엔피	한재용 (80)축산학	㈜네이처그로
이승환 (80)농생물학	정구민 (84)축산학	㈜여러분의 천년초	한준호 (64)임학	(주)이피텍
이시혁 (80)농생물학	정민섭 (59)임학	㈜오리엔탈드림	현의승 (61)잠사학	㈜푸름바이오 박현준 원예학
이양호 농촌진흥청장	정윤환 (56)임학	㈜유원테크	현진오 (66)농생물학	재단법인 묵운재단 축산학
이은규 (77)농학	정일영 (62)축산학	㈜이레텔	현진호 (88)천연섬유학	㈜바이옌
이완주 (63)잠사학	정중훈 (77)농공학	㈜이지코스	호영하이텍	㈜제노레버코리아
이용창 父 (99)생물자원공학부	정주상 (77)임학	㈜장수로	홍상욱 (83)원예학	
이용환 (79)농생물학	정진구 (65)농공학	㈜지오플	홍인식 (79)원예학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발전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농생대 발전기금 출연안내] 농생대 교육연구재단 전화 : 02)880-4510 농생대 홈페이지 : <http://cals.snu.ac.kr>

[동문동정]

- ▶ **강범구** 동문(농공학 76)이 7월 22일 케이엘넷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다.
- ▶ **김학원** 동문(농공학 77)이 8월 1일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장으로 부임하였다.
- ▶ **이재욱** 동문(농업교육 81)이 8월 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으로 취임하였다.
- ▶ **정영근** 동문(식품공학 75)이 8월 5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비상임이사로 선임되었다.
- ▶ **김기덕** 동문(조경학 77)이 8월 16일 우정사업본부장으로 취임하였다.

[교수동정]

▶ **하남출 교수**(농생명공학부)는 차의과대 조유희 교수와 공동 연구를 통해 녹농균이 인체에서 생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OxyR)의 구조 규명에 성공하였다(한국연구재단 7월 11일 발표). 녹농균은 패혈증 등 심각한 난치성 감염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이번 연구는 이에 대응하는 신종 항생제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립과학원회보(PNAS) 최근호에 게재됐다.



하남출 교수

▶ **우리 대학 이기원 교수, 최윤재 교수**(각 농생명공학부)가 7월 23일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 발기인으로 참여하였다. 한국식품·건강소통학회는 식품·건강 관련 각종 문제에서 소비자·정부·지자체·미디어·기업 등의 소통이 원활하고 효율적이며 건전하게 이뤄지게 하는 기술·방법 등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맞춘 국내 첫 학술단체이다.



이기원 교수



최윤재 교수

▶ **최영찬 교수**(농경제사회학부)와 **최홍림 교수**(농생명공학부)가 7월 29일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자문위원으로 선임되었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종시를 '농업분야 창조경제의 메카'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로 현재 스마트팜(지능형



최영찬 교수



최홍림 교수

비닐하우스 관리시스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영찬 교수와 최홍림 교수는 향후 센터운영 및 사업방향성에 대해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 **정옥주 교수**(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는 7월 29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열린 '어린이 조경학교'에서 '나무와 정원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였다. 어린이 조경학교는 서울시와 환경조경나눔연구원이 함께 운영하며, 교육과정은 우리 대학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의 재능기부로 기획되었다.



정옥주 교수

▶ **이태호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8월 7일 남양주 산림교육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가 개최한 워크숍에 좌장으로 참여, 토론을 진행하였다. 이날 토론에서는 주요 국정과제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 복지증진과 일하는 방식 개선 등 5개의 주제에 대하여 미흡한 점과 성과 창출을 위한 대안 등이 제시됐다.



이태호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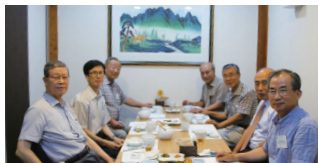
▶ **권오상 교수**(농경제사회학부)는 8월 28일~29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2015 한국환경경제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가규별 소비자료를 이용한 전력수요함수 추정 및 요금제도 변경의 효과 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학술지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권오상 교수

[동창회 소식]

▶ 차기동창회장후보추천위원회 제1차 준비 회의



8월 21일 제 10대 동창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참배나무골 사당 집에서 열렸다. 김동태(농경제 62) 위원

장을 비롯하여 이현수 현 동창회장(농화학 60), 이은종(농생명 59) 위원, 이돈구(임학 65) 위원, 구자욱(농학 60) 위원, 정성봉(농교육 63) 위원, 류관희(농공학 64) 수석 부회장이 참석하였고 차기 회장뿐만 아니라 앞으로 동창회를 이끌어갈 인물을 찾기 위한 준비 회의를 하였다. 우선 동창회 회칙 가운데 임원 규정, 회장 선출 규정과 유사한 사항, 일정을 점검하고, 최근 추천을 의뢰하여 접수된 회장 후보들에 대하여 토의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차차기 동창회장을 비롯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후보를 추가로 발굴하기로 결의하고 4시간 여에 걸친 회의를 마쳤다. 다음 위원회는 2015년 10월 20일 열릴 예정이다.

▶ 상록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

8월 26일 75-1동 203호에서 상록문화재단 2015년도 2학기 장학금 수여식이 개최되었다. 이날 수여식은 류관희 상임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이현수 이사장, 정철



영 학장 및 장학금 출연자와 여러 교수가 참석하여 장학금을 받는 학부생 27명과 대학원생 14명을 격려했다. 이 장학금은 장학기금 출연자가 직접 장학증서를 전달하는 것이 특징으로, 선후배가 직접 만나는 훈훈한 자리가 되었고 오찬도 장학금 기부자와 학생들이 한 테이블에서 함께 하여 벚바리(후견인)를 뜻하는 순우리말)와 학생들이 친밀해지는 자리가 되었다.

이현수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오늘은 대학원생 1인당 250만원, 학부생 1인당 200만원씩 지급하여 41명의 장학생에게 총 91,100,000원의 장학금(고등학생에 지급한 장학금 포함)을 전달하였으나 앞으로는 장학생들의 등록금에 맞추어 지급하도록 하여 액수에 따라 장학금 종류를 바꾸지 않아도 되도록 하겠다."고 장학금 수여방식을 개선하겠다고 하였다. 또 이현수 이사장은 "현재 추진 중인 장학사업을 차차 여기 모인 장학생들이 앞으로 동창회의 임원이 되는 벚바리 사업으로 키워 나가도록 하겠으며, 장학금 기부자 선배님들도 후배들이 사회에서 자리 잡을 때까지 벚바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151-921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홈페이지 <http://cals.snu.ac.kr>

※ 지역번호 (02)

학장실 T.880-4501~2 F.873-7709

교무행정실 T.880-4505~7 F.873-2009

학생행정실 T.880-4531/4508 F.873-5597

연구행정실 T.880-4910 F.873-7729

기획실 T.880-4510/4538 F.873-5579

사무행정실 T.880-4512~5 F.873-0263

입학진로정보실 T.880-4667 F.880-4668

식물생산과학부 T.880-4540

- 작물생명과학전공 T.880-4550 F.877-4550

- 원예생명과학전공 T.880-4578 F.873-2056

- 산업인력개발학전공 T.880-4830 F.873-2042

산림과학부 T.880-4750

- 산림환경과학전공 T.880-4777 F.873-3560

- 환경재료과학전공 T.880-4780 F.873-2318

농생명공학부 T.880-4901

+ 식품 동물생명공학부 T.880-4869

- 식품생명과학전공 T.880-4850 F.873-5095

- 동물생명과학전공 T.880-4800 F.873-2271

+ 응용생물화학부 T.880-4640

- 응용생명화학전공 T.880-4650 F.873-3112

- 식물미생물학전공 T.880-4690 F.873-2317

- 곤충학전공 T.880-4700 F.873-2319

+ 바이오모듈레이션전공

T.880-4907 F.877-4906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T.880-4670

- 조경학전공 T.880-4870 F.873-5113

- 지역시스템공학전공 T.880-4580 F.873-2087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T.880-4590

- 바이오시스템공학전공 T.880-4600 F.873-2049

- 바이오소재공학전공 T.880-4620 F.873-2285

농경제사회학부 T.880-4710

- 농업자원경제학전공 T.880-4711 F.873-3565

- 지역정보전공 T.880-4740 F.873-5080

협동과정 농생명유전체학 T.880-4901 F.873-2039

협동과정 농림기상학 T.871-0211 F.871-0230

농장 T.(031)293-0310~2 F.(031)295-4216

수목원 T.(031)473-0071 F.(031)473-0072

학술림 T.880-4526 F.873-2031

실험목장 T.(033)339-5901 F.(033)339-5909

농학도서관 T.880-4774~5 F.884-0182

교육연수원 T.880-4844 F.872-8995

농업공학실 T.880-4619

농업생명과학정보원 T.880-4523 F.882-7670

식품공장 T.880-4824

농생명과학동기지원 T.880-4845 F.888-4847

식품병원 T.880-4697 F.880-4698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T.(031)293-0324 F.(031)294-8527

농업생명과학연구원 T.880-4910~4 F.873-7729

식품바이오융합연구소 T.880-4920~1 F.873-5260

식품유전체중추진연구소 T.880-4930 F.873-5410

곰팡이병원성연구센터 T.880-4950 F.873-4950

세균의사소통연구센터 T.880-4686 F.873-2317

식품안전성 및 독성연구센터

T.880-4919 F.883-4919

채소육종연구센터 T.880-4945 F.873-5410

농생명 및 식품산업 혁신 역량 강화사업단

T.880-4631 F.873-3565

농생명공학사업단 T.880-4901~2 F.873-2039

식품분자유종사업단 T.880-4978~9 F.875-4978

최고농업정책과정 T.880-4735 F.886-4898

식품품질경영·유통최고위과정 T.880-4735

국가농림기술센터 T.871-0234 F.871-0230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기술대학원

232-916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평창대로 1447

홈페이지 <http://greenbio.snu.ac.kr/>

T.(033)339-5680 F.(033)339-5689

★ 소식을 통해 알고 싶은 소식이 있거나 구독을 원하시면 농생대 기획실(T. 880-4538, jhw1234@snu.ac.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